

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2. 28.(수) 10:00

5 분 자 유 발 언

(양정초 토사,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손옥선 의원)

- 양정초 토사,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 의원입니다.

저는 폭우만 오면 토사가 유입되는 양정초등학교
문제 해결에 집행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연이어 내리는 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양정초등학교에 또 토사가 유입된 건 아닌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양정초등학교는 지난해 폭우로, 인접 야산의 토사가
학교로 유입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떠내려온 토사 때문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폭우처럼 쏟아지는 토사에 학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토사와 풀더미가 엉켜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긴급 사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초등학교는 바로 뒤에 야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도 폭우만 오면 토사가 쏟아져
학교가 뿔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폭우의 위력이 더 세지고,
더 잦아지면서 아이들의 안전 또한
거세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등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마치 고랑처럼 패여 있는 땅과 곧 쓰러질 듯한 나무 등
토사 유입 현장을 직접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비 예보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야산과 인접한 양정초등학교 별관 저층은 돌봄반, 유치원생 등 주로 저학년이 사용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며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양정초등학교 토사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집행부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산주가 부동의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향후 소방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라 도로 개설 후 추가 조치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바로 뒤 임야가 교육청 땅이라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알아본바 양정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는 올해 보상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착공될지도 모를 소방도로의 개설 이후에 조치계획을 세운다면 속된 말로 이런 ‘뒷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다시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거센 비가 내릴지, 또한 얼마나
자주 내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지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선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산주 측에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 내릴지 모를 폭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당장 마련하고 방수물품도 구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복구청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비만 오면 전전긍긍하는 양정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복구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복구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우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